

'99년도 협회 주요 사업 계획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을 위한 사업환경조성과 인터넷 전문인력 보급 활동, Y2K문제인식확산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온 우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다 비중있는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99년도 우리 협회가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이다.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관련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법정민간단체로서 기본적인 목표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는 물론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업체나 개인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보통신망관련 사업자는 S/W, SI, 통신장비 제조업체 등이라 할 수 있다.

협회에게 주어진 주요기능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 환경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을 위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정보통신망관련 국내외의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보급 활동, △정보통신망등에 관한 조사통계 활동,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정

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 등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협회의 설립근거법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고, 이에따라 협회의 회원범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제공자로 확대되고, 인력개발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조정이 있게 되었다.



신임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께서도 '빛의 속도로 일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축을 통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일과 100만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를 강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정보인프라구축방안으로 통신망의 고도화와 시스템의 표준화, 교육, 영어능력등

4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 협회도 금년에는 협회의 회원범위나 기능이 일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나 활동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와 정보통신업계의 경쟁력강화이고, 여기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협회 역대 회장단협의회 구성, 정보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지난해 부터 도입된 별정통신분야를 비롯하여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고 대안있는 정책제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정한 게임룰을 바탕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진출입 촉진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회선품질을 개선하고,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인터넷 (NGI)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세계적인 환경에 맞추는 표준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같은 일을 망 운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국가적 역량투입이 가능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지금보다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처림 산·학·연·관 모두가 합심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협회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업종별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통신망의 고도화와 시스템의 표준화 등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역대 회장단 모임을 새로 구성, 정책 당국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Y2K인증센터 본격 가동, 컴퓨터 연도표기 문제 해결

21세기 진입 문턱에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Y2K 문제는 단순한 컴퓨터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명제가 되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7년초부터 이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해 3월부터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민간부문 Y2K해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을 순회하면서 Y2K 해결사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협회는 Y2K문제가 국가의 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하반기부터 국내 업체에 Y2K 해결 결과를 인증해 주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왔고, 올 1월12일에는 국내 SI업체와 힘을 합쳐 한국Y2K인증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협회는 동 센터를 통해 국내업체의 Y2K문제 해결 정도를 확인, 그 사실을 인증해 주는 한편, 인증 결과가 미국등 해외 기관에서 인증받게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국제간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번 Y2K인증센터 개소식에서 정보통신부장관

이 제시하였듯이 Y2K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IT분야 Program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Non IT분야, 즉 기계장치와 계측기 분야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특히 국내에 장비를 공급하고 소멸된 회사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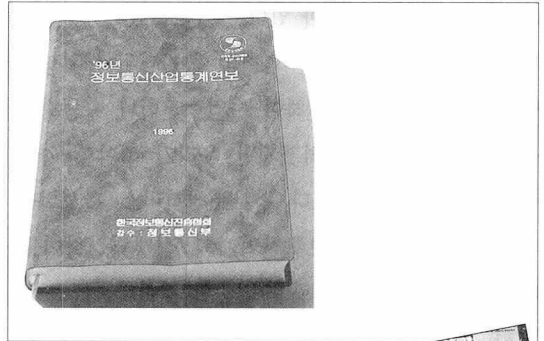
셋째는 우리가 수출한 제품과 기술들을 사용하는 외국기관이나 업체등에 대한 Y2K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병행하여 Y2K인증시스템을 구축, Y2K 해결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동 센터가 단순히 Y2K 문제를 해결한 결과만을 가지고 인증해 주는데서 머무르지 않고, 센터내에 중소기업 Y2K 지원실을 설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약 3,000명 규모의 전산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전자상거래와 멀티미디어 보급확산 기반조성

정보인프라를 조기구축하는 문제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할 것이 이를 기반으로 본계도에 오를 멀티미디어와 전자상거래 분야이다.

멀티미디어의 수요확산과 현실로 다가온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처 하는 문제가 시급한 만큼, 산·



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협의회와 EC협회의 회를 중심으로 표준보급 활동과 함께 제도환경을 정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 생각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내 47개 사이버 쇼핑몰을 하나로 묶어 시작한 사이버쇼핑엑스포와 같은 시범사업과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는 정보통신분야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이분야 신기술 개발과 고용창출을 견인해 나갈 계

확이다.

아울러 우리협회가 맡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정업체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그 범위를 확대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 사이버시대가 요구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

협회가 사이버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97년초부터 시작한 인터넷 전문인력 보급활동도 보다 확대 추진함으로써 고용창출을 견인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인력 보급 활동은 인터넷관련 기술교육사업과 기술자격인증사업, 기술인력활용사업등 크게 세가지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정보검색 표준교재를 개발, CATV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일반인의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년에는 일반인의 취업촉진과 재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검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교육기반이 미비한 원격지 교육이 가능토록 하고, 지방 사설학원 강사등이 이같은 정보를 활용, 수강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10,000여명의 정보검색사와 인터넷전문가를 배출한 인터넷기술자격시험 역시 사회적 인지도가 확보된 만큼, MCSE (Microsoft Certified System Engineer), CNE(Certified Novel Engineer), CCIE(Cisco Certified Internetworking Expert), DBA(Database Administrator)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자격들에 견주어 경쟁에 손색이 없는 자격으로 발전시켜

고용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같은 인적자원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 전문인력 DB도 구축, 서비스해 나갈 생각이다.

△ 정보통신산업을 MF 극복 견인산업으로 육성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협회가 지난해 부터 미수채권으로 인해 가중되는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PCS, PC통신, 인터넷, 무선호출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이용자 신용정보관리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기초로 이제부터는 분실단말기 찾아주기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사업자의 국사 공동운영이나 국제회선 공동구매, 통합온라인빌링, 정보통신단말기 핵심부품 등 애로기술 공동개발 등도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수요를 국내 정보통신산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새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금년부터 국산장비의 내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국산장비의 보급장애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급체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국산장비에 대해 특정기관에서 신뢰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우리 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다.

를 제공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

△ 협회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원년으로

특히 금년부터는 그동안 국내문제에만 치중해 왔던 협회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협회 활동을 국제화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개도국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국내 우수 정보통신업체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로드쇼를 개최,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들 업체의 비전을 사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일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종합안내 정보

△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으로 생산성향상 유도

정보통신산업분야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정부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발간사업이나 정보통신 주요품목동향조사 사업도 지속 추진하되, 이같은 통계가 우리 정부나 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제고는 물론 다양성 확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유형을 면밀하게 분석, 제시함으로써 국가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정책마련과 아울러 민간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SK텔레콤, 가입자 600만 돌파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이 이동전화 가입자 6백만명을 돌파, 세계 7위 사업자로 뛰어올랐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스피드 011 가입자가 지난해 5월 5백만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만에 다시 6백만명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은 5배 43만명, 아날로그 가입자는 57만명의 분포를 보였다.

이 회사는 6백만명의 가입자는 전세계적으로 제7위의 단일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국의 벨에틀랜틱(지난해 11월 기준 5백70만명)보다는 앞서고 SBC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6백만 고객의 성별 수치와 관련, 지난 96년 15%에 불과하던 여성이 지난해에는 27%까지 늘어나 남초현상이 크게 완화됐고 96년 135%에 머물던 20대 가입자가 지난해에는 326%로 높아져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고객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휴대전화가 신세대 및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